

## Background and Purpose

간호 학생에서 면허증 취득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 전환 동안에 대부분의 입사 초기 간호사들은 이론과 임상과의 격차로 현실충격을 경험하게 된다(Ebrahimi, Hassankhani, Negarandeh, Azizi, & Gillespie, 2016). 또한 육체적 피로와 건강문제를 호소하며, 특히 불규칙한 교대 근무로 개인의 취미 생활을 할 여유가 없고, 종교활동, 친구 모임 등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우울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간호사로서의 역할전환은 스트레스가 많은 적응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고, 간호직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이직의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은 쾌락주의적 관점에서의 행복과 동일시되는 개념으로(Richard M. Ryan & Deci, 2001), 간호사가 일방적 자기 헌신이 아닌,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므로, 간호사 스스로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정체성**은 사회적 그룹 구성원들에 의해 알려진 자기 개념의 일부를 의미하지만, 최근 스트레스와 사회적 연결, 안녕감의 관계를 설명하는 틀로서 '**사회정체성 접근법**'으로 설명되는 사회정체성이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다중 그룹 멤버십'으로부터 형성된 사회정체성으로, 개인의 안녕을 보호하는 심리적 자원의 개념이다(Brown & Hewstone, 2005). 즉, 사회정체성이 강한 사람의 경우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의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여 개인의 안녕(우울, 주관적 안녕감)을 보호할 수 있다(Frisch, Häusser, van Dick, & Mojzisch, 2014). 따라서 사회정체성의 확립은 정신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고,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삶으로의 전환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점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Praharso, Tear, & Cruwys, 2017). 그러나, '사회정체성 접근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의 연관성을 포함한 간호사 개인영역의 사회정체성까지 다룬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가 많은 삶의 전환에 있는 간호사의 사회정체성을 분석 후 지각된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를 확인하여 지각된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데 있다.

## Methods

### 연구설계

간호사의 사회정체성을 분석하여 지각된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정체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행한 횡단적 조사 연구.

### 연구 대상

병원에 입사 후 부서에 발령 받은 경력 2년 이내의 간호사.

### 연구 도구

1) **사회정체성** Haslam등(2008)이 개발한Exeter identity Transition Scales(EXITS) 도구 (Haslam et al., 2008)를 김개영등(forthcoming)이 번역, 수정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도구사용. 다중그룹 멤버십(Multiple Group memberships)과 중요 그룹 멤버십의 수(Number of important group membership) 2가지 모두 사회정체성 측정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 모두 측정은 하였고, 두 도구 중 '**다중그룹 멤버십**'을 본 연구의 사회정체성 변수로 사용.

2) **지각된 스트레스**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SS)를 사용함

3) **주관적 안녕감**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를 사용함.

### 자료수집 및 분석

C대학병원 대상 편의 추출과 타 병원대상 눈덩이 표본 추출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수집 기간은 병원에 입사하여 부서에 발령받은 임상경력 2년 미만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일까지 시행하였고 온라인 설문지로 진행함.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 (Baron & Kenny, 1986)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단순 및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

## Results

지각된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1, Table 1).

1단계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지각된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사회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beta = -.30, p < .001$ ) 설명력은 8 % 였다. 2단계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지각된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beta = -.35, p < .001$ ), 설명력은 9 %로 나타났다. 3단계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형으로 설명력은 13%로 나타났다( $F = 17.06, p < .001$ ). 3단계에서 사회정체성을 매개변수로 했을 때 인지된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계수( $\beta$ )가 2단계의  $-.31$ 에서  $-.24$ 로 그 절대값이 감소하여 사회정체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 상·하한값이 각각  $-0.148 \sim -0.025$ 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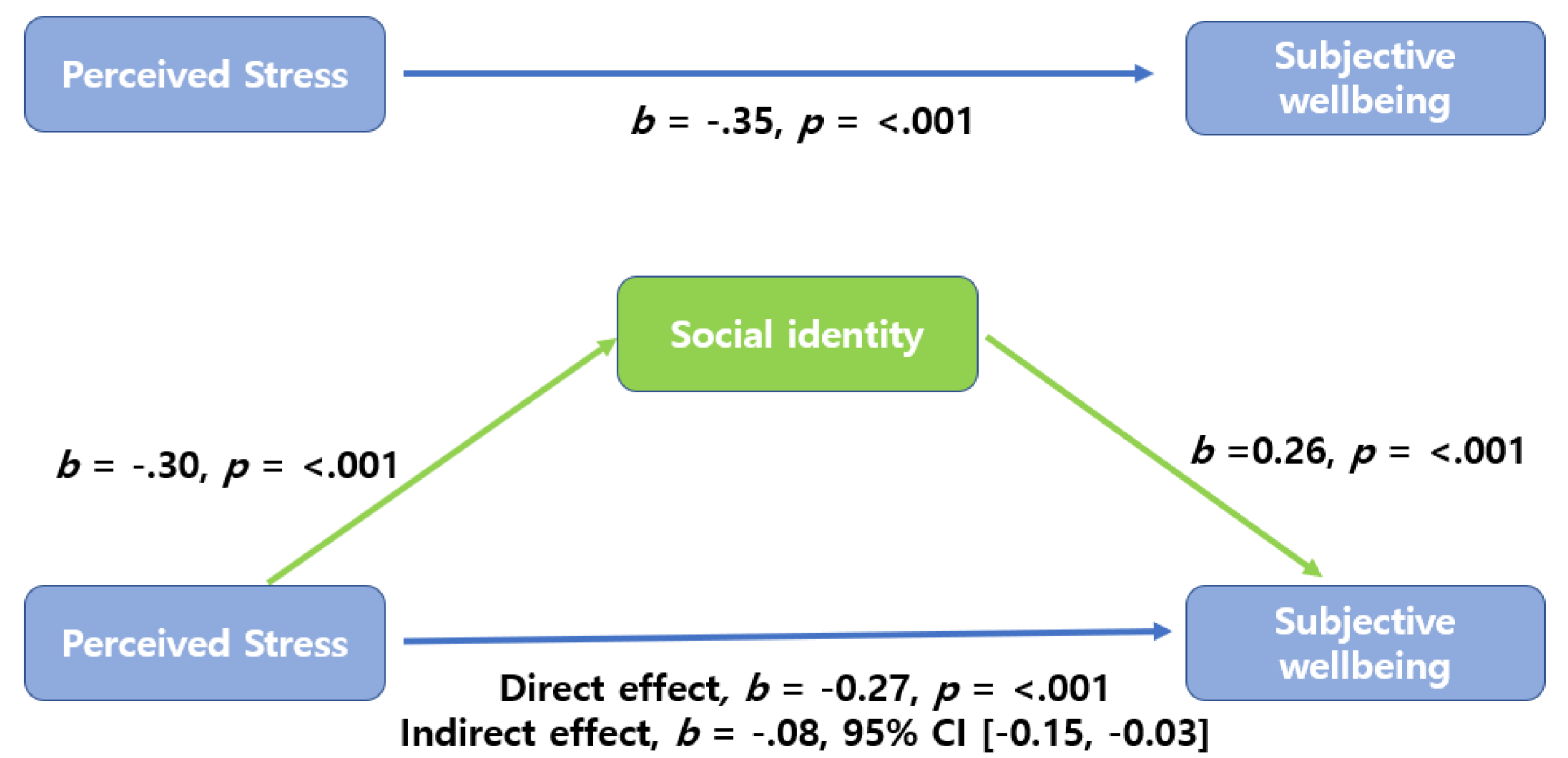


Figure1. Model for mediating effect of social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Table 1] Mediating Effects of Social identit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Causal steps			B	SE	$\beta$	t (p)	Adj.R <sup>2</sup>	F (p)
Step 1.	Perceived stress	→ Social identity	-.30	.07	-.30	-4.48 (<.001)	.08	20.08 (<.001)
Step 2.	Perceived stress	→ Subjective well being	-.35	.08	-.31	-4.62 (<.001)	.09	21.32 (<.001)
Step 3.	Perceived stress & Social identity	→ Subjective well being					.13	17.06 (<.001)
1)	Perceived stress	→ Subjective well being	-.27	.08	-.24	-3.50 (.001)		
2)	Social identity	→ Subjective well being	.26	.08	.23	3.42 (.001)		
			Boot LLCI -0.148, Boot ULCI -0.025					

## Conclusion

본 연구는 임상 경력 2년 미만의 신규간호사의 사회정체성을 확인했다는 점과 신규간호사의 사회정체성 강화를 통해 지각된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중그룹멤버십을 갖는 것 즉, 높은 사회정체성은, 신규 간호사가 다양한 사회지지체계의 활용 기회를 가지고서, 스트레스가 많은 삶의 전환 시기를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저하를 보호하게 된다. 스트레스가 많은 삶의 전환시기에 성공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역할전환을 할 수 있도록 신규간호사에게 간호역량위주의 교육제공 뿐만 아니라 사회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Brown, R., & Hewstone, M. (2005).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tact.
- Frisch, J. U., Häusser, J. A., van Dick, R., & Mojzisch, A. (2014). Making support work: The interplay between social support and social ident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5*, 154-161.
- Praharso, N. F., Tear, M. J., & Cruwys, T. (2017). Stressful life transitions and wellbeing: A comparison of the stress buffering hypothesis and the social identity praharso model of identity change. *Psychiatry research, 247*, 265-27